**부활 제3주일(2018년 4월 1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부활 세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토프라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강론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단순히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라고 말로만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분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비로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 처럼, 내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합니다. 과거의 오랜 잘못된 습관이나 악습, 욕심, 이기심, 교만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과거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의 삶을 못살고 있는 것이죠.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 새 출발, 그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 새 출발 합시다”하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보셔. 내 나이가 일흔이 훨씬 넘었는데, 내가 낼 모레면 여든인데, 얼마나 더 살거라고, 이제 와서 인생 새 출발해서 뭐합니까?” “내 청춘 돌려주면, 나도 인생 새 출발 한번 해 보지요!”

인생 새 출발 하는데,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이승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세의 삶도 잘 마무리하고, 저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보다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이가 상관없죠. 지금 새출발하는 겁니다.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의 출발.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안치할 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펼쳐질 엄청난 사건에 대한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후에 무덤은 텅 비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한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먼저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시죠.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스승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승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용기있게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섰는데... 그리고 그 스승님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치 세상을 다 품은 것처럼 마음이 뜨겁고 후련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 스승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후회와 죄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시간을 꺼꾸로 돌릴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 버린 물,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면서,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빌어주는 그 순간, 제자들은 과거의 잘못과 후회로 부터 용서 받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 필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용서를 받는 그 순간, 그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렵고 죄스러웠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 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제자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매번 미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로 시작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또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 살아 왔든지 상관없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치유의 순간이고, 용서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마음 속에 가득차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를 빌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존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찾아온 이 참된 평화와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구원의 첫번째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언제 어디서든, 때로는 믿음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또 실망스런 그런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평화는 함께 나누는 평화, 세상 곳곳에전해야 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는 바로 내 삶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활 이야기, 내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계속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이야기의 주인공들이고, 또 증인들입니다.